

### 1. 연쇄

- 물건과 물건을 이어 매는 사슬이라는 뜻
- 주로 연이어 일어나는 현상이나 연달아 등장하는 대상을 표현할 때 등장 쉽게 이어지므로 바꿔서 읽을 수 있음

EX) 연쇄법: 글을 쓸 때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에 첫머리에서 '이어받는' 수사법으로 효과로 이미지나 심상은 강화됨

닭아 닭아 우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세고 날이 세면 나 죽는다

### 2. 연원

- 사물의 깊은 근원이라는 뜻
- 쉽게 근원과 출발점이라고 바꿔서 읽을 수 있음. 암기하면서 어떤 행동의 동기나 출발점을 이야기했던 모티브 다시 한번 기억하기

EX) 우리 민족의 연원은

### 3. 연유

- 크게 2가지 의미를 기억하기. 하나는 일의 이유(사유)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유래한다는 것
- 쉽게 사유와 유래로 바꿔 쓸 수 있음 다만 유래는 연유되다의 형태로 기억!

EX) 그 믿음은 원시 신앙에서 연유된 것이다.

### 4. 염세

- 세상을 괴롭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쉽게 현실을 바라보는 매우 비판적인 관점이라고 이해하면 되며 유사하게는 회의적 등의 표현과 잘 어울린다

EX) 그의 염세적인 시각은

### 5. 양생

- 건강 관리를 잘 하여 오래 살기를 꾀함. 병으로부터 잘 회복함
-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함
- 콘크리트 양생은 익숙하나 전자의 의미도 기억하자

## 6. 와중

- 글자 그대로 보자면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물의 가운데를 의미.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의미를 활용해 어떤 일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얽힌 가운데를 의미한다
- 쉽게 '복잡하게 얽힌 일이나 시기 중'으로 바뀌서 읽을 수 있으면 됨

EX) 피난의 와중에

## 7. 유기적

- 여러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는. 그리해서 각 부분 사이에는 긴밀한 통일성이 있고 부분과 전체 역시 긴밀한 통일성이 있는 것을 의미
- 유기적 대상에서는 마치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서로 떼어낼 수 없게 된다.. 유기적에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 떼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자

EX) 유기적 결합

## 8. 유린

- 함부로 짓밟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로 적대적인 대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우리와 연관된 대상이 큰 피해를 입을 때 주로 등장하며 짓밟다로 바뀌서 읽을 수 있음

EX) 국토가 유린당하다

## 9. 완연히

- 겉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한다는 의미
- 쉽게 뚜렷하게 드러나다로 바뀌서 읽을 수 있음

EX) 병색이 완연하다

## 10. 외연히

- 높고 우뚝하다는 의미
- 산 파위가 매우 높고 우뚝할 때 주로 등장한다

## 11. 외경

- 절대자나 생명처럼 숭고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

- 쉽게 높은 가치에 대한 존경& 두려움 등으로 바뀌서 읽을 수 있음

EX) 생명에 대한 외경

### 12. 의연

- 의자가 글에서 끔찍하다는 의미
- 쉽게 의지가 글세대로 바뀌서 읽을 수 있음

EX) 의연한 사람이 되어라

### 13. 이지적

- 이지를 같이 정리하기. 이지는 이성과 지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이지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성과지혜를 가지고 있는 혹은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라는 뜻.
- 판단 등에 있어서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또 성격이나 평가에 있어서 이성과 지혜 같은 슬기가 느껴지는 이 두 의미 모두 기억 둘 다 긍정적

EX) 그 사람은 이지적 외모를 가졌다

그는 이지적 판단으로

### 14. 인습

-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풍습, 습관, 예절 등
- 중요한 것은 인습은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인습은 이전부터 전해오는 습관 중 합리적 진보적 관점에서 의심받거나 부정되는 것으로 인습을 만나면 이전의 풍습과 습관 중 현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서 읽자

EX) 인습에 따르는 행위는

### 15. 일절

- 아주 전혀 절대로 도무지 결코 등의 의미일체
- 중요한 것은 일절은 부정의 서술어와 어울려 어떤 행위를 멈추거나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 이러한 측면에서 일체와 비교가 필요함
- 일체는 모든 것 온갖 것을 의미하며 긍정의 서술어와 어울려 온갖 것이 있고 행위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

EX) 너 그런 말은 일절 하지마

부식 일체 있음.

#### 16. 자의성

- 제멋대로 되거나 이루어지는 성질
- 쉽게 제멋대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로 바뀌서 읽을 수 있음

EX) 그의 그러한 자의적 서술은

#### 17. 자조적

-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이라는 뜻
- 자조는 자신에 대한 '부정 인식'을 바탕으로 한 쓴 웃음을 의미. 자기 자신에 대한 쓴 웃음으로 바뀌서 읽기

EX) 자조적인 그의 표현

#### 18. 적층

-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서 쌓여진 것이라는 의미
- 적층 문학 등 문학을 이야기 할 때 자주 등장하며 이야기가 누적되어 쌓이므로 쉽게 바뀌서 읽을 수 있음

EX) 구비 문학은 적층 문학의 대표적인

#### 19. 전기적

- 전기적 의미는 크게 2가지 이며 각각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함
- 우선 고전 소설에서 마치 마법 천자문처럼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이야기를 서술할 때 전기적이라고 함. 이때는 비현실적인, 이상하고 진기한 이라는 의미. 도술과 마법과 어울리는 서술
-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진기한 전기적 말고도 뉴턴의 전기처럼 일생을 적은 전기적도 있음. 쉽게 한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것으로 이해

EX) 금방울 전에서는 전기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이순신 장군의 전기는

#### 20. 전향

- 기존의 사상이나 이념을 바꾸어 그와 배치되는 즉 그와 다르고 반대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돌
- 바른 국어 다른 결과

리는 것을 의미

- 쉽게 사상이나 이념을 반대의 사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바꿔 읽을 수 있음

EX) 그 장군의 전향은

21. 전위적

- 예술 운동에서 가장 선구적인이라는 뜻
- 쉽게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것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음

EX) 그의 전위 예술은

22. 전지적

- 모든 것을 다 아는 이라는 뜻
-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알 수 있듯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의미

EX) 전지전능한 신

23. 전형적

- 특정한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의미
- 쉽게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면 그 대상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으로 대표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등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음

EX) 한국 남자의 전형적인 성격을

24. 접철

-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이 서로 이어진다는 의미
- 더 쉽고 익숙한 정의는 관련이 있는 상황이나 사실이 서로 이어진다는 정의. 실제 글에서는 이어지다. 존재하다 등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음

EX) 오욕과 영광으로 접철된 인생은

25. 조장

- 도와서 북돋움이라는 의미
- 의도적으로 어떠한 경향이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쉽게 유도하다 부추기다로 바꿔서 읽을 수 있음

EX)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의 광고는

26. 좇다

- 남의 뒤를 따르다는 의미. 실제로는 어떠한 여론이나 대세를 따를 때 자주 등장
- 좇다와의 구분이 필요한데 좇다는 억지로 몰아낸다는 의미

EX) 그는 다수의 의견을 좇아

인디언을 쫓아낸

27. 주동

- 어떤 일에 주장이 되어 행동하는 것을 의미
- 유사한 다른 단어와의 비교가 필요. 구체적으로 주도는 주동과 거의 유사하며 주장이 되어 이끌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주도 역시 어떤 일을 주장하여 꾸미는 것을 말한다. 단 다른 주도에 비해 모략이나 음모 등과 자주 어울려 등장한다

EX) 주동자가 누구니?

그가 이 일을 주도했어

역모의 주도자가 누구냐

28. 주재

-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는 의미
- 주로 회의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진행할 때에 자주 등장함 쉽게 중심이 되어 처리함으로 바뀌어 읽을 수 있음

EX) 이번 회의는 회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29. 주정적

- 이성 지성 합리성 보다는 감정적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
- 쉽게 정서를 중심으로 놓는 것으로 감정적, 주관적, 정서적과 어울림
- 김소월의 진달래 꽃처럼 이별의 정한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시들은 주정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음

30. 주지적

- 감정과 행동 보다는 이성 지성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 쉽게 지적인 것을 중심으로 놓는 것으로 지적 이성적 객관적 비판적과 어울림
- 눈처럼 이성적 판단을 통한 비판적인 시는 주지적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음

### 31. 지론

-지극히 당연한 이론

### 32. 웃VS 윙

- 웃: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경우. 웃돈. 웃어른. 웃웃(맨 곁에 입는 웃)
- 윙: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경우. 윙눈썹. 윙몸. 윙사람. 윙웃

### 33. 멋쩍다 겸연쩍다 객쩍다

멋쩍다: 썩스럽고 어색하다는 의미 또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

겸연쩍다: 몹시 미안해서 낮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을 의미

쉽게 썩스럽고 미안하여 어색한 것을 의미 겸연쩍다와의 표기 주의!

객쩍다: 행동이나 말이 쓸데없고 실었다는 의미

EX) 그는 멋쩍게 웃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겸연쩍은지

객쩍은 소리하지 마라

### 34. 퍼센트 VS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 '기존 수치를 기준'으로 올라간 수치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

퍼센트 포인트: 기존에 제시된 퍼센트의 수치 자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표시한 것

EX) 만약 금리가 2퍼센트에서 1퍼센트가 되었다면 50퍼센트 감소 1퍼센트 포인트 감소라고 해야 함

<지문 적용>- 어휘력과 맥락적 독해 중심

맥락적 독해는 순접 인과 예시 열거 첨가 요약은 연결 역접 전환은 꿈기

CF) 이후 독해- 스키마를 통한 정보 처리/ 세부정보/ 생동 맞은 정보의 이해/ 이미지화

1. 2012 MEET/DEET

울곡 이이는. 이론적 고원(高遠)함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노자」에 담긴 수신적 덕목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자」가 유학의 체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선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서명응이 「노자」의 비움과 낮춤의 도리를 양생(養生)과 처세의 가르침으로 삼겠다고 하고. 홍석주가 마음 수양법으로 수정(守靜)과 과욕(寡欲)에 주목하여 양생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인 것 등은 이이와 상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노자의 본의가 유학의 수기 치인(修己治人)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데. 후세 사람들이 곡해하여 「노자」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노자와 장자를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서명응이 「장자」내용의 황당함을 거론하여 「노자」와 차별화하고. 홍석주가 노자와 도가를 구별하면서 장자가 유학의 도를 비난한 점 등을 거론한 것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고원: 높고 원대하다. 높고 심오하다. 처세: 세상을 살아가다

수정: 깨끗함을 지키다 과욕: 욕심이 적다

노자의 수신적 덕목/ 유학의 체계 안에서의 자리 잡음/비움과 낮춤을 양생과 처세로/ 수정과 과욕/ 수기치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장자의 황당함

2. 2012 MEET/DEET

식민자가 피식민자를 본국에 맞게 교화하려 하거나 거꾸로 피식민자가 식민자에게 자발적으로 동화되려 할 때.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 언어 등을 모방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피식민자가 식민자를 모방하려 해도 그 모방은 완전하 똑같은 복제가 되지는 못한다. 그것은 피식민자의 완전한 동화를 두려워한 식민자가 본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불완전하게 전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틀이 놓인 맥락(역사, 전통, 언어 등)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식민자의 모방은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흉내 내기'가 될 뿐이다. 모방 과정에서의 차이는 피식민자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피식민자는 식민자의 문화와 담론을 모방하면서도 그것을 비틀어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전유'라 한다

모방하나 복제가 되지는 않는다

불완전한 전달/ 맥락의 차이/ 흉내내기& 피식민자의 의도/ 조롱/ 전유

1.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바다 국어 독서 기초3

### 1.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 라고 정의된다.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위법하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CF) 주의할 배경지식- 법과 정치: 위법성 책임 구성요건 이 3가지는 암기하기다

위난: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 문제

'의도- 사고/생각- 행위'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볼 것인가.

오인 사격으로 죽였을 경우 나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다. 처벌

위법성 조각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 즉 위법한 행동을 했음에도 전체 법질서에 비추었을 때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정당 행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다. 가장 익숙한 것은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도인데 중요한 법익 등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여 행위한 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물을 수 없다는 것과 연결된다. 피해자의 승낙의 경우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신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그가 허락할 수 있는 일정한 법익 안에서만 허용된다. 자동차에 대한 방화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기에 자신의 법익을 넘어서고 이로 인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책임은 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적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즉 처벌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며 이는 다른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특정한 장애를 가진 경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보아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협박 등에 의한 경우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 2.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 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에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인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송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법성은 행위 자체에 대한 것. 책임은 주로 행위자와 관련된 것.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자유의지가 반영되기에 어려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책임/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 법적인 비난

CF) WITH 2023 수능특강/ 추가 배경지식 같이 정리하기

책임은 THE PERSON 위법성은 A PERSON

법에서의 비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자유의지에 기반한 것이 중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비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개인줄 알고 죽였다)

방법의 착오(원래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도 행위가 있기에 죄이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주관적 정당화 요소. 행위의 상당성이 있다. 객관적 정당화 요소의 경우에는 외적인 상황. 그 상황의 현재성 등이 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는 방위를 행하는 사람의 인식과 의사이며 상대가 마음에 안들어서 때리는 것은 이러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의 결여를 의미한다. 행위의 상당성의 경우에는 필요성과 요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글 후반에 등장하는 과잉방위나 잘못 판단한 생각/상상에 기반한 오상방위가 될 수 있다

구속: 행위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구속함

자기 구속의 원칙: 자기가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 즉 준칙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는 이탈할 수 없다는 것. 행정법에서는 자기가 타인에게 적용하던 규칙을 갑자기 다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경우에 누군가는 위법 누군가는 위법이 아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동일한 경우에 형량 차이도 같은 맥락으로 거부될 수 있다.

3.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개인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거나 또는 한 개인의 복지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고 할 때,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인간 복지의 본성이나 요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도덕철학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쾌락주의적 이론'은 긍정적인 느낌으로 구성된 심리 상태인 쾌락의 정도가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어떤 개인이 느끼는 쾌락이 증진될 때 그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둘째, '욕구 충족 이론'은 개인이 욕구하는 것이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어떤 개인이 지닌 욕구들이 좌절되지 않고 더 많이 충족될 때 그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셋째, '객관적 목록 이론'은 개인의 삶을 좋게 만드는 목록을 기준으로 그것이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된다고 본다. 그러한 목록에는 통상적으로 자율적 성취, 지식, 친밀한 인간 관계, 미적 향유 등이 포함되는데, 그것의 내재적 가치는 그것이 개인에게 쾌락을 주는지 또는 그것이 개인에 의해 욕구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 중에서 '쾌락주의적 이론'과 '객관적 목록 이론'은 어떤 것들이 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복지 이론이며, '욕구 충족 이론'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려주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복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내재적: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안에 존재

내재적 가치는 도구/ 수단적 가치와 대비, 그것 자체로 추구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외재적 도구적 수단적은 또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와 목적이다

복지와 본성에 대한 이해/ 쾌락의 정도 / 욕구하는 것이 추구되는 정도/ 좋게 만드는 목록이 충족되는 정도

1.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새로운 전쟁은 국가의 통제 하에 놓이는 공식 경제와 조세를 통한 국가 수입뿐만 아니라 비공식 경제를 통해서도 전쟁 자금을 조달한다. 생산이 붕괴되고 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 집단은 약탈, 납치 등과 무기·마약·자원 등의 불법 거래, 국외 이주자의 송금, 인도적 원조에 대한 '과세', 타국 정부의 후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비공식 경제/ 약탈/ 납치/ 무기 마약 자원 등의 불법 거래/ 국외 이주자의 송금/ 인도적 원조에 대한 과세/ 타국 정부의 후원// 일반적인 공식 경제와 생산 활동 등에 대한 조세와는 구별된다.

2.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우리는 빨강게 잘 익은 사과를 보고서, "그래, 저 사과 맛있겠으니 가족과 함께 먹자."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때 우리는 빨간 사과에 대한 감각 경험을 먼저 한다. 그러고 나서, "저기 빨간 사과가 있네."라거나 "사과가 잘 익었으니 함께 먹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린다. 이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에 대한 선행 조건임을 의미한다. 감각 경험에 대한 판단과 추론은 고차원의 인지 과정이며 개념적 절차이고, 판단과 추론이 개입하기 이전의 감각 경험은 비개념적 내용을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먼저 주어진 후에 판단과 추론이 이어지는 것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를 '비개념주의'라고 부른다.

비개념주의는 우리가 알아채는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본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퇴근 후 아내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아내가 그날 노랑게 염색한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아내의 핀잔을 들은 후 염색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서 어떻게 이를 모를 수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이렇게 현저한 변화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상을 변화맹(chang blindness)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러한 특징적인 변화를 정말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각 경험이 주어졌으나 이 경험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판단과 추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다. 우리는 아내의 노란 머리를 단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 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개념주의/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선행 이후에 판단과 추론의 개념 과정/ 변화맹/ 경험은 주어졌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3.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그러나 '개념주의'는 시각 경험과 판단·추론이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여기에는 배경 지식이나 판단 및 추론 같은 고차원의 인지적 요소들이 이미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념주의에서는 우리가 빨간 사과를 지각할 때 일종의 인지 작용으로서 해석이 일어난다고 여긴다. 식탁에 놓인 것을 '빨간 사과'로 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해석이다. 우리가 이 해석 작용 자체를 인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작용은 두뇌 곳곳에서 분산되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일종의 판단이나 추론이라는 것이다

지각: 알아서 깨달음.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함. 여기서는 후자와 가깝다. 지각은 글의 맥락에 따라서 경험으로 읽어야 한다

개념주의/ 경험과 판단 추론이 별개가 X/ 이미 개입

CF) 칸트의 경험 개념. 감각적인 자극+ 선험적인 틀= 참된 경험

1.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공화주의란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기초하여 공동체적 삶에서 자의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에 적합한 형태의 공동체에 관해서는

주로 그 규모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시민적 덕성이 제대로 발휘되어 파벌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크기가 작아야 하지만, 외세의 침략 위협에 맞서 충분한 안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커야 할 것이다. 미국 헌법 제정기의 연방주의자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1787. 10~1788. 8)의 저자들은 바로 연방 공화국의 형태가 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대외적 취약성을 둘러싼 공화주의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파벌 지도자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하게 막는 분할의 이익과, 한데 뭉쳐 외부의 적에 대항하도록 하는 결집의 이익을 함께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가까이 있어서 서로를 잘 아는 사람들보다 불가피하게 소원한 거리에 놓인 사람들이 우정과 연대의 공적 정신을 유지하기란 더 어려울 수 있다. 광대한 영토 위에서 공화주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익의 추구를 자제하고 공동선을 지향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연방주의자들은 대의제와 권력분립 등 헌정주의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이성과 법의 지배를 통하여 파벌과 전제적(專制的) 다수의 출현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이 사그라지거나 폭주하지 않도록 헌법의 틀을 씌웠던 것이다.

자의적: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파벌: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라진 사람의 집단

이해관계: 서로의 이익과 손해가 걸려있는 관계

소원한다: 지내는 사이가 거리가 있어 서먹서먹하다

헌정주의: 헌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 권력분립과 행사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것

전제적: 자기 의사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전제적 군주

공화주의/ 공동선추구&시민의 정치 참여& 자치&자의적X/파벌과 전제적 다수X/과한 사익 추구X

## 2.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공화주의자들의 이해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오늘날 헌법은 주로 정치 공동체의 실질적인 가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견고한 문서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은 헌법적 논쟁들에 대해 판단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헌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작용이나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극히 법적인 의미로 이해된 헌법과는 달리, 공화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헌법이란 단순히 정치 공동체 내에서 권력이 분할되는 방식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구성된 특수한 정부 형태를 지칭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것이었다. 통치자의 선출과 정치적 지분의 할당을 통해 경쟁적 사회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로마의 혼합정체 이래 지속 가능한 공화국의 골자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 비로소 등장한 법적 의미의

헌법은 당시 미국의 공화주의적 헌법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조차 의도되었던 바가 아니며, 성문의 헌법을 채택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은 사법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민의 헌장을 갖는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오늘 날의 헌법/정치 공동체의 실질적인 가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정하는 견고 문서/ 판단해줄 누군가가 필요함/ 헌법과 충돌하는 법률의 효력은 상실/ 법적 의미/ 사법적 현상

↔단순히 정치 공동체 내에서 권력이 분할되는 방식& 정부 형태를 지칭하는 정치적인 의미/ 지속가능한 공화국의 골자/ 시민의 헌장(헌장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으로 기억)

### 3.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헌법의 의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법적 의미의 헌법 개념을 과거의 공화주의 사상가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헌법을 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전제에서 공화주의를 위하여 제안되는 이른바 헌정 주의적 수단들이 역으로 공화주의의 핵심적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는 문제 때문이다. 예컨대, 그러한 수단의 하나로 제안되는 법률의 헌법 기속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들이 다수결로 도출하는 합의를 불신한다는 면에서 공동체적 삶의 향배를 시민들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공화주의의 이상에 반하는 것이며, 그보다는 차라리 국가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사고의 장치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꿔 말해서 소수의 현자들에 의한 사법 심사의 과정으로 뒷받침되는 헌법은 더 이상 공화주의적이지 않으며, 나아가 미국의 민주정치가 발전하는 데도 방해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공화주의와 헌법/ 법적인 이해를 전제로 공화주의를 위한 즉 자의성을 줄이기 위해 제시되었던 헌정주의적 수단들이 목적과 충돌/ 기속 개념/ 공동체의 다수결 합의 즉 국회의 법률을 불신/ 이상에 반하는 것/ 자유주의적 사고/ 소수의 현자

### 2. 2016학년도 LEET 언어 이해

「로마법대전」에 대한 연구는 12세기에 볼로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 이 법서는 '기록된 이성'이라 부를 만큼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었고, 그 가운데 특히 「학설휘찬(Digesta)」 부분이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로마 시대의 저명한 법학자들의 저술에서 발췌한 학설들이 수록되어 있다. 초기에 법학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치중하였고, 로마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이러한 학풍은 13세기 중엽 표준 주석서를 집대성하는 성과를 낳았고, 이후로는 로마법을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지의 문제로 법학의 중점이 옮겨 갔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학설휘찬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그것을 역사적 사료로 보면서 주석서의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접근하는 시도가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낱설지 않게 되었다. 17세기의 학자인 라이프니츠도 로마법 자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논의를 이끌어 내려 하였다.

기록된 이성/ 정확한 이해/ 비판적X/ 표준 주석서/ 적용에 초점↔ 역사적 사료/ 새롭게 접근/ 비판적 접근/ 새로운 논의

3. 2017학년도 LEET 언어 이해

지난 2008년의 미국발 금융 위기와 관련해 '증권화'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증권화란 대출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이 현금화가 쉽지 않은 자산을 시장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당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기관, 곧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유통화해 이를 투자은행,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사 등에 매각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지 유통화 증권을 통해 오랜기간에 걸쳐 나누어 들어올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고,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전가 할 수 있었다. 증권화는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금융 혁신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증권화/ 유통성이 낮은 자산을 유통성이 높은 시장성이 높은 유가 증권으로/ 현금 미리 확보/ 원리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광범위한 전가/ 리스크를 감소, 새로운 투자기회, 효율성, 혁신

1. 2014학년도 LEET

하지만 금융 위기가 일어나면서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당시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대출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집값 대비 대출 금액이 높았던 비우량(subprime) 모기지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계속 상승해 왔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비우량 모기지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신종 유가증권들이 대형 투자은행 등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유·유통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증권화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관심 속에서 과도한 차입을 통해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증권들의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부정적 측면/ 대출기준의 완화/ 비우량 모기지 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광범위한 유통

2. 2014학년도 LEET

이에 따라 증권화를 확대한 금융기관과 이를 허용한 감독당국에 비판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 위기의 원인이 증권화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었다.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긍정하는 이 '정부 주법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심화 문제를 포폴리즘으로 해결하려던 것이 금융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불평등 심화의 근본 원인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이므로 그 해법 또한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확대 등의 정책에서 찾아야 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저소득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빚을 늘려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미봉책을 펼쳤는데, 그로 인해 주택 가격 거품이 발생했고 마침내는 금융 위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거론된 것이 바로 지역재투자법이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 정부 주법론/ 미봉책/ 주택 가격 거품/ 금융 위기/ 지역재투자법

3. 2014학년도 LEET

지역재투자법이란 저소득층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낙후 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정부 주범론'은 이 법으로 인해 은행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들에게로까지 주택 자금 대출을 늘려야 했고, 이것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정부 주범론'은 여기에 더해 지역재투자법의 추가적인 파급 효과에도 주목한다. 금융기관들은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심사 관련 기강이 느슨해졌고 지역 재투자법과 무관한 대출에 대해서까지도 대출 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주택 가격 거품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재투자법/ 낙후지역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 저소득층//

이 과정에서 관련 기강 해이/ 전반적 완화/ 주택 가격 거품

4. 2012 MEET/DEET

주목할 점은 신성하고 권위적이어야 할 식민자의 담론과 문화가 홍내 내기나 전유의 과정에서 피식민자에 의해 오염되고 훼손된다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이론은 이런 이유로 홍내 내기나 전유가 모두 식민자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며 저항의 외연을 확장한다. 그 때문에 피식민자의 인식적인 동화 행위도 차이를 낳는 무의식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 식민자의 문화를 홍내 낸 '검은 세익스피어'는 차이를 통해 인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식민자에 저항했던 것이다.

오염과 훼손/ 홍내 내기& 전유 모두 저항으로 가능/ 인식적인 동화도 무의식적인 저항

1. 2014학년도 LEET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음악 작품의 가사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본다. 이 입장을 근거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이 제목의 도움 없이도 인식 가능해야만 재현이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제목이 작품의 일부인 한, 예술 작품의 재현성은 제목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물레질하는 그레첼>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반주 음형은 제목과 더불어 감상될 때 물레의 반복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들린다.

가사, 제목,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 일부/ 제목 없이 인식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무리/ 제목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작품을 대상으로 재현 파악

2. 2014학년도 LEET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형성된 카르텔 규제 법리는 '당연 위법의 원칙'과 '합리성의 원칙'으로 나뉜다. '당연 위법의 원칙'은 가격 합의와 같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 제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목적이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가격 담합, 물량 담합, 입찰 담합, 시장 분할 등이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된

는 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반면, '합리성의 원칙'은 거래 제한의 목적이나 의도,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나 부정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이다. '합리성의 원칙'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합작 투자 협정이나 공동 연구 개발 협정과 같은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해 '당연 위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거래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원고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입증하거나 시장 점유율 등의 시장 지배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사법적 자원이 절약될 수 있다. 정부나 원고는 '당연 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만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위법성을 엄밀히 입증하면 된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은 거래 제한의 부당성에 대한 심사 방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해 주므로 법 집행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카르텔 규제법리/ 판례법으로 형성된/ 당연 위법의 원칙/부당하게 경쟁 제한/ 담합과 시장 분할 등이 적용// 사법적 자원의 절약

합리성의 원칙/ 목적과 의도 긍정적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 개별적으로 위법 여부 파악/ 합작 투자 협정/ 공동 연구 개발/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로 법 집행의 효율성 증대. 예측 가능성 증대

### 3. 2012 MEET/DEET

윤리적 이기주의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규범적 이론이다. 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든 안 하든 각 개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이기주의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으므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또 윤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하지 않는 이론은 아니다. 윤리 이론이라면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이어야 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윤리적 이기 주의/ 규범적 이론/ 실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든 안 하든 이익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당위/ 다른 사람을 돕는 일 가능/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